

花東甲骨文에 나타난 征伐 관련 卜辭 考察*

申永子**

〈目 次〉

1. 서론
2. 征伐 관련 卜辭의 내용
 - 1) 복사 내용 및 模本과 拓本
3. 내용 분석
 - 1) 人物考
 - 2) 地名考 : 卬, 召方, 刀方에 대한 고찰
4. 결론

1. 서론

花園莊東地甲骨文¹⁾(이하 '花東卜辭'이라 칭함)은 1991년 가을 殷墟博物館에서 安鋼大道에 이르는 도로 보수 과정에서 1,583편의 갑골편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굴된 갑골편은 수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전혀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형태의 갑골이 전체 80%가 넘고 刻辭가 있는 甲骨이 559편을 차지하고 있어 갑골문 연구뿐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占卜의 주체자가 王이 아닌 子이기 때문에 非王卜辭²⁾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27-A00468).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1) 花園莊東地甲骨文은 1991년 花園莊에서 동쪽으로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H3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명칭을 '91花東H3甲骨文' 또는 '花東H3甲骨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또한 刻辭가 있는 갑골편은 '花東卜辭', 'H3卜辭' 또는 主體가 子이기 때문에 'H3子卜辭'라고도 칭한다. 본편에서는 '花東卜辭' 또는 H3卜辭로 명칭한다.
- 2) 非王卜辭란 왕이 아닌 제삼자가 주체가 되어 점복을 한 刻辭를 의미하고,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는 왕이 아닌 '子'가 주체가기에 非王卜辭에 속한다. 반면 王이 주체가 되어 왕실의 사안에 대해 점복을 한 것은 王卜辭라고 한다. 기존에 발굴된 갑골이 대부분 왕실의 사안에 대

있다.

古代 전쟁은 생존을 위한 행위였다. 옛날 중국인들은 맹수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자연을 상대로 많은 투쟁을 했다. 商代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商代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제사와 전쟁³⁾이었다. 제사는 상왕실을 이끌어 가는 정신세계였고, 전쟁은 왕조를 존속시켰던 현실세계였다. 상왕조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成湯이 夏桀을 무찌르고 상왕조를 건국한 이래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帝辛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정벌로 점철되어 왔다.⁴⁾ 특히 상왕조가 殷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상왕조를 부흥시켰던 武丁 시대에 가장 많은 정벌활동을 벌였다. 당시 90여개의 방국이 있었는데 武丁 시대에만 60여 개국을 정벌했다. 武丁의 재위기간이 59년이었으니 일상이 정벌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수많은 전쟁 卜辭가 있는 王卜辭와는 달리 花東卜辭 중 정벌에 관한 卜辭는 5개뿐이다. 같은 날에 각기 다른 3개의 귀판에 실려 있다. 兆序로 볼 때 成套卜辭는⁶⁾ 아니다. H3卜辭에서 정벌에 관한 卜辭가 이처럼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벌 활동은 없었고 상왕실을 도와 정벌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花東卜辭 중 정벌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왕실이 아닌 商代 초기 귀족집단 즉 非王卜辭 에서의 정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정벌에 참여했던 인물 및 정벌대상 방국이던 卍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武丁시기 중 초창기 귀족의 征伐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 점복을 했기에 왕실에서만 점복을 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花東甲骨文이 발굴되면서 非王卜辭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戰爭과 征伐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본 편에서는 한 지역과의 전투는 征伐로, 여러 지역을 의미하는 총체적인 征伐 활동은 戰爭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4) 梁東淑, 《甲骨文解讀》, 2005, 350쪽.

5) 申永子, 《甲骨文的 비밀》, 2011, 71쪽.

6) 成套卜辭란 동일 사건을 각기 다른 귀판에 새기고 일련번호로 차례를 나타낸 卜辭를 말한다. 훼손된 卜辭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征伐 관련 卜辭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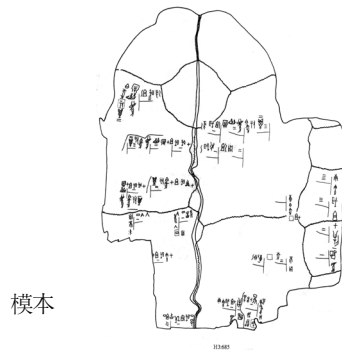
花東甲骨文 중 정벌과 관련된 복사 기록은 3판에 5개의 刻辭가 있다. 즉 H3:237(6){685}, H3:275(3.4){816+1221}, H3:449(1.2){1387}7)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卜辭 내용

[例1] H3:237(6){685}

辛未卜: 丁佳好令從〔白〕或伐郟.

辛未 일에 점을 칩니다. 丁은 婦好에게 명하여 白或(이하 '伯或'으로 칭함)과 연합하여 郟를 정벌할까요?



[例2] H3:275(3.4){816+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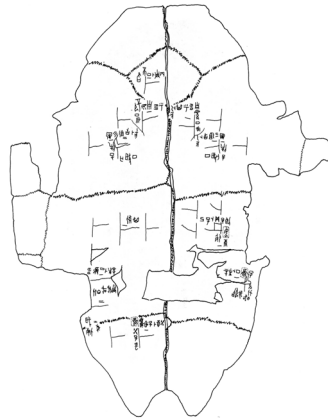
(3) 辛未卜: 丁〔佳〕子〔令〕從白或伐郟.

辛未일에 점을 칩니다. 丁은 子에게 명령하여 伯或과 연합하여 郟를 정벌할까요?

(4) 辛未卜: 丁佳多□從白或伐郟.

7) H3은 花東甲骨文이 발굴된 갱이다. H3 다음에 부여된 번호는 花東甲骨文 중 卜辭 기록이 있는 귀판에 부여된 번호이다. 총 발굴된 1,583편 중에 559편만 卜辭 기록이 있다. 괄호 ()의 번호는 해당귀판에 여러 개의 刻辭 기록이 있는데 이를 일련번호를 메기고 그 중에서 정벌관련 복사가 있는 행의 번호이다. { }는 총 발굴된 1,583편 일련 번호 중 卜辭 기록이 있는 해당 번호이다.

辛未일에 점을 칩니다. 丁은 多□에게 명령하여 伯或과 연합하여 冏를 정벌 할까요?



模本

H3:816+1221



拓本

H3:816+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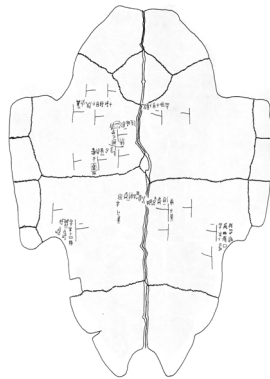
[例3] H3:449(1.2) {387}

(1) 辛未卜: 白或毋冊, 佳丁自正(征)冏.

辛未일에 점을 칩니다. 伯或이 책령을 받았는데 丁이 친히 冏를 정벌할까요?

(2) 辛未卜: 丁弗其從白或伐冏.

辛未일에 점을 칩니다. 丁은 伯或과 연합하여 冏를 정벌하지 말까요?



模本

H3:1387



拓本

H3:1387

3. 내용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H3 卜辭에는 征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적다. 征伐은 王室의 일이었기에 왕실을 도와 征伐에 참여했을 뿐이며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H3 卜辭가 非王 卜辭에 속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는 花東 卜辭 중 征伐에 관련된 人物 및 地名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人物考

花東 卜辭 중 정벌관련 卜辭에는 王 卜辭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인 丁, 婦好, 子, 多□와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수인 伯或(或伯이라고도 함) 등이 있다. 이들 인물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婦好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 즉 丁이나 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이들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살펴보려고 한다.

(1) 子

花東 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는 도대체 누구일까? 花東 卜辭에서 子는 독립된 점복기관을 가지고 직접 점복을 하고, 직접 제사를 주관하며, 노예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며, 商王에게 공납을 하는 등 商王室의 정치와 군사 활동에 깊이 관여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⁸⁾

花東 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의 신분이 확정되면 商代歷史 및 商代의 가족 형태 연구 등 유관학문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래서 1993년 花東甲骨이 정리되어 책으로 나온 이후 子의 신분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 방향이나 방법론이 달라 현재까지도 子의 신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다. 크게 나뉘보면 다음과

8) 申永子, 〈花園莊東地甲骨文的 主體인 ‘子’에 대한 考察〉, 2007, 108-116쪽.

같다.

① 子は 武丁의 아들 太子 孝己이거나 아들 항렬이면서 친아들이다.

楊升南은 《殷墟花東H3卜辭“子”的主人是武丁太子孝己》에서 子は 武丁의 아들인 太子 孝己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첫째, 卜辭 중에 子가 부친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없는데 이는 子의 부친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武丁이다. 둘째, 花東卜辭중의 제사 차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祖乙, 祖甲, 妣庚이며 세 사람이 동시에 제사를 받기도 했다. 祖乙은 小乙(武丁의 父)이고, 祖甲은 陽甲(武丁의 祖父)이며 妣庚은 武丁의 생모라고 규명했다.⁹⁾

韓江蘇는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에서 子は 武丁의 太子라고 논증했다. 이에 대해 王宇信¹⁰⁾, 雷曉鵬¹¹⁾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녀는 《殷墟H3卜辭主人“子”爲太子再論證》에서 재차 마르크스 이론에 의거 子は 武丁의 太子라고 논증했다.¹²⁾

姚萱은 《試論花東子卜辭的“子”當爲武丁之子》에서 子は 武丁의 아들항렬이며 친아들이라고 규명했다. 그는 花東卜辭에 나오는 ‘毓祖’를 王卜辭와의 비교를 통해 祖乙로 분석하고 花東卜辭 중의 祖乙은 武丁의 아버지 小乙로 규명했다. 花東卜辭 주체자인 子와 武丁과의 친밀관계를 종합하여 子は 당시 상황인 武丁의 아들 항렬이며 친아들일 것으로 고증했다.¹³⁾

② 子は 羌甲(沃甲). 南庚의 후예이다.

花東甲骨을 직접 정리한 劉一曼. 曹定云 두 연구자는 子を 羌甲(沃甲). 南庚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子是 武丁과 같은 항렬의 인물로 武丁의 직계와는 먼 사촌 형

9) 楊升南, 〈殷墟花東H3卜辭“子”的主人是武丁太子孝己〉, 2004, 209쪽.

10) 王宇信, 〈序《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8, 154쪽.

韓江蘇의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는 花東甲骨 연구에 있어서 우수한 저작이며, 연구 방법 등 적지 않은 창의성이 돋보인다. 향후 花東甲骨 연구에 진일보한 깊이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甲骨學, 商代史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

11) 雷曉鵬, 〈迎難而上, 探尋真相《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評介〉, 2009, 151-154쪽.

12) 韓江蘇, 〈殷墟H3卜辭主人“子”爲太子再論證〉, 2008, 17-33쪽.

13) 姚萱, 〈試論花東子卜辭的“子”當爲武丁之子〉, 2005, 42쪽.

제일거라고 논증했다. 그와 같이 추론한 이유는 花東卜辭에서 祖甲, 祖乙과 妣庚. 妣己에게 지내는 제사 횟수가 가장 많고, 祖乙 이전 先王의 이름이 甲인 인물은 단지 羌甲(沃甲)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花東卜辭 주체자인 子는 羌甲(沃甲)의 후예이며 武丁과는 父도 다르고 祖도 다르다고 했다.¹⁴⁾

曹定云은 《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에서 다시 한 번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인 子는 羌甲(沃甲). 南庚(羌甲의 아들)의 후손이며 南庚을 祖庚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武丁과는 마땅히 같은 항렬의 인물이며, 武丁과는 관계가 먼 堂兄弟(사촌형제)라고 설파했다.¹⁵⁾

③ 子는 武丁의 從兄弟이거나 伯父 혹은 叔父일 것이다.

朱鳳瀚은 《讀安陽殷墟花園莊東地出土的非王卜辭》에서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는 왕족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성립된 子族의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武丁의 먼 친척이거나 백부나 숙부 혹은 종형제의 항렬일 것이다¹⁶⁾ 라고 주장했다.

④ 子는 상나라 조정대신이다.

李學勤은 《花園莊東地卜辭의 ‘子’에서 非王卜辭의 특성 및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와 127개의 子와의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은 동일인이 아님을 논증하고, 花東卜辭 중의 子의 신분은 조정대신이라고 주장했다.¹⁷⁾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常耀華는 子는 羌甲(沃甲)의 후예가 아니며 武丁의 후손도 아니며,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는 상왕실과 분명 혈연관계라고 했다. 그 가족의 족보는 적어도 小甲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현재로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蔡哲帽는 子는 당연히 陽甲의 손자이며 그 아버지는 武丁의 종형제로 봤다. 宋鎮豪는 子는 이미 적극적인 사회인으로서 그 연령은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花園莊東地甲骨. 前言》, 2003, 30-32쪽.

15) 曹定云, 《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 2009, 8쪽.

16) 朱鳳瀚, 《讀安陽殷墟花園莊東地出土的非王卜辭》, 2004, 212쪽.

17) 姚萱, 《試論花東子卜辭的“子”當爲武丁之子》, 2005, 44쪽.

15~20세전후의 인물이며, 林沄은 子는 武丁의 아들 紂라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太子 紂이거나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異見을 제시했다.¹⁸⁾

역사는 추측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 韓江蘇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정벌관련 복사내용을 살펴보면 子는 丁 및 婦好 등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2) 丁

花東卜辭 중에는 丁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정벌에 관한 복사 내용은 모두 丁이 명령의 주체이다. 즉 丁이 子, 婦好, 多□에게 명령을 내려 或伯과 연합하여 卨를 정벌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丁의 신분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최근에는 당시의 왕인 武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

陳劍은 《設花園莊東地卜辭的“丁”—附：釋速》에서 花東卜辭에서 자주 보이는 丁은 당시의 왕인 武丁이며 H3괘의 년대는 武丁의 말기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陳劍은 花東卜辭의 정벌관련 복사에서 丁이 子에게 명령하여 或伯과 연합해서 卨를 정벌하는 卜辭와 歷組卜辭에서 召方과 刀方관련 복사와 비교하면서 丁이 武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¹⁹⁾ 朱岐祥은 《由語詞系聯花東甲骨的“丁”即武丁》에서 丁은 곧 당시의 상왕인 武丁이다.²⁰⁾ 라고 했고, 魏慈德²¹⁾도 丁은 武丁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曹定云은 《殷墟花東H3卜辭中的“王”是小乙—從卜辭中的

18) 雷曉鵬, 〈迎難而上, 探尋真相(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評介〉, 2009, 151쪽.

19) 陳劍, 〈殷墟花園莊東地卜辭的“丁”—附：釋速〉, 2004, 59쪽.

20) 朱岐祥, 〈由語詞系聯花東甲骨的“丁”即武丁〉, 2005, 12쪽

당시 상왕의 이름은 武丁이었다. 그러나 왕의 이름을 칭하지 않고 개인 이름인 丁이라 칭한 것은 武丁이 집권한 초창기에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化東갑골문의 주체자인 子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다.(12) 商代 당시의 권력승계 규범에 의하면 武丁의 아버지 小乙의 사후에는 응당 19대 왕인 盤庚의 장자이거나 20대 왕인 小辛의 장자가 왕위를 계승해만 했다. 그러나 武丁은 아버지 小乙에 의해 태자가 되었고 22대 상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신영자, 《갑골문의 비밀》, 65쪽).

21)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1쪽.

人名“丁”談起》에서 丁과 王을 구분하고 살아있는 丁은 武丁이 즉위하기 전의 이름이고, 王은 小乙이라고 규명했다.²²⁾ 李學勤은 《關於花園莊東地卜辭所謂“丁”的一點看法》에서 陳劍이 논증한 대로 丁은 武丁이며, 丁자는 璧자의 象形 初文으로 花東卜辭에서는 辟으로 읽어야 하며 그 뜻은 君이라고 했다.²³⁾ 또한 裘錫圭는 丁자의 독음은 帝로 읽어야 하며, 직계 선왕을 대표하며, 직계계승의 즉장이며 그 즉장을 존칭한 것이라고 했다.²⁴⁾

최근에는 陳劍과 朱岐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丁은 당시 상왕인 武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花東卜辭에 王이라고 칭한 卜辭가 있어 王과 丁의 관계는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曹定云이 王을 武丁의 아버지인 小乙로 규명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아 異論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²⁵⁾ 그러나 정벌 관련 복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丁은 子보다는 지위가 높고 王과 비견되는 인물이며, 丁과 子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여 혈연관계라고 할 수 있다. 魏慈德 또한 子와 丁과의 관계에 대해 복사내용을 고찰하여 두 사람이 혈연관계임을 입증하기도 했다.²⁶⁾

(3) 婦好

婦好는 중국 역사시대에서 밝혀진 최초의 실존여인이다. 그는 商代 제22대 왕 武丁(B.C. 1324~B.C. 1265)의 妃로 B.C. 13세기 말에서 B.C. 12세기에 걸쳐 생존했다.²⁷⁾ 1976년 은허 궁전 유적지 서남쪽에서 婦好의 묘를 발굴하게 됨으로

22) 曹定云, 《殷墟花東H3卜辭中的“王”是 小乙—從卜辭中的人名“丁”談起》, 2007, 18쪽.

23) 李學勤, 《關於花園莊東地卜辭所謂“丁”的一點看法》, 2004, 40쪽.

24)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1쪽.

25) 王譯然,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類出人物的考證》, 2012, 16쪽.

26)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2-75쪽.

魏慈德은 다음 6가지로 子와 丁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1) 子는 上왕의 명령을 받아 上왕실과 관련된 일을 했다. 2) 子는 부단히 上왕의 안위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더불어 종종 上왕이 기뻐할지 여부를 점검했다. 3) 子는 上왕에게 進貢했고, 上왕에게 近황을 보고했다. 4) 子는 上왕의 일정을 추측하면서 上왕의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5) 王의 來方을 접대하고 자신의 品으로 안내했다. 6) 子는 미리 王의 결정이 어땠을지에 대해 점검을 했다.

27) 梁東淑, 《甲骨文中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43쪽.

써 그의 실존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婦好墓에서 발굴된 유물은 그동안 전설이나 신화에서만 존재했던 상나라를 명실공히 역사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록과 유물을 통해 婦好의 행적을 살펴볼 때 婦好는 왕으로부터 봉지를 하사 받아 다스렸고, 왕을 대신해 제사를 주관했으며, 직접 占卜을 한 貞人의 역할도 했다. 또한 중국 역사상 기록이 있는 최초의 여성 총사령관으로 당시 13,000명이라는 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가장 강한 적국인 羌方을 정벌하기도 했고, 역사상 최초로 매복전을 펼쳐 巴方을 정벌하기도 하는 등 여러 전쟁에 참가해 적국을 무찔러 용맹스러운 위업을 남긴 猛將이기도 했다. 그녀는 33살이라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슈퍼우먼 역할을 했던 여인이다.²⁸⁾

花東卜辭에는 婦好가 자주 등장한다. 子와 婦好와의 관계에 대해 魏慈德은 다음과 같이 규명했다. 첫째, 子는 婦好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사람을 파견해 부호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했다. 둘째, 子는 丁이 기뻐할지의 여부에 대해 점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婦好가 기뻐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 동향에 대해 추측했다. 셋째, 婦好가 子의 領地를 來方할 때면 子는 그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를 행했다.²⁹⁾ 이것으로 추측해 볼 때 子는 丁과 婦好에 대해 지극한 예를 다했고 그들의 안위와 왕실의 안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엿 볼 수 있다.

(4) 多□

王卜辭에서 多是 매우 흔하다. 친족의 호칭, 族의 한 분파, 商代 百官 중 하나, 武官의 명칭, 史官의 명칭 등 다양하다. 친족의 호칭으로는 多父, 多母, 多兄, 多子, 多生, 多介父, 多介兄, 多公 등이 있다. 卜辭 중 族은 王族, 多子族, 三族, 五族이 있고 多子族의 인물로는 犬侯 등 3명이 있으며, 三族의 인물로 沚臧이 있다.³⁰⁾ 百官으로는 多臣이 있고 武官으로는 多馬, 多射, 多犬 등이 있다.³¹⁾

28) 申永子, 《甲骨文的 비밀》, 2011, 86-93쪽.

29)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6-77쪽.

30)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1988, 496-497쪽.

31)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1988, 483-522쪽.

최근 張玉斌은 花東275版과 517小版을 綴合하여 “辛未卜：丁唯多₂臣令比或伯伐郟。275.4+517.15(花東)”라는 刻辭를 복원했다.³²⁾ 이에 대해 姚萱은 多□를 ‘多₂臣’으로 隸定하였다. 즉 歷組卜辭 중의 ‘帝五₂臣’의 ‘₂’과 비교한 후 같은 자형임을 고증하고 둘 다 ‘介’로 독음하며 賓組卜辭에서 많이 보이는 ‘多介父’ 등의 介로 보았다. 그 의미는 副나 次이다. 介臣은 지위가 비교적 낮아서 副, 次의 지위에 있는 신하로 보았다.³³⁾

그러나 花東卜辭에는 ‘多寧’이라는 인물도 나온다.³⁴⁾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王卜辭에는 多가 흔하다. 花東 正別복사에서 나오는 多□가 人名인것만은 분명하지만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

(5) 伯或(白或)

伯或은 或伯이라고도 한다. 或은 人名이고, 伯은 爵位의 명칭이다. 商代 최고 통치자는 商王이고 왕 아래로 지배계층에 속하는 부류에는 婦, 子, 侯, 伯 등의 근친귀족과 異姓諸侯들이 있다.³⁵⁾ 갑골문, 금문에는 侯나 伯을 칭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某侯, 某伯 혹은 侯某, 伯某라고 칭하고 있다. 某는 侯伯의 封地이며 侯나 伯은 爵位의 칭호이다.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侯나 伯 다음에 方國名을 넣어서 칭한 경우가 있다.³⁶⁾

伯或은 正別에 관련된 花東卜辭 중 유일하게 나타난 武官의 명칭이다. 裘錫圭는 그를 商代 방국 중 하나인 沚方의 수령이라고 했다. 沚方의 수령으로 沚或과 沚或 두 개의 명칭이 있다. 裘錫圭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규정했으나 최근엔 동일인이 아님을 규명했다. 沚或은 巴方, 土方, 畀方, 羌方을 正別하는 데 참여했고, 沚或은 召方과 卨을 正別하는데 참여했다.³⁷⁾

32) 蔣玉斌, 《殷墟子卜辭的整理与研究》, 2006, 220-221쪽, 229쪽, 246쪽.

33) 姚萱, 《花東甲骨“多₂臣”与相關問題》, 2010, 38쪽.

34) 乙亥卜：其乎多寧見丁，永。(多寧으로 하여금 丁을 만나게 할까요?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H3:816)

35) 梁東淑譯, 吳浩坤·潘悠 著, 《中國甲骨學史》, 2002, 374쪽.

36) 孫亞泳·林歡 著, 《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55쪽.

花東卜辭와 동일인물인 伯或은 歷組卜辭(合32814)에서도 나타난다.³⁸⁾ 伯或은 또한 沚或(合33107)으로도 칭하고 있으며, 沚或은 또한 沚戈(合32048)라고도 칭하고 있다.³⁹⁾ 즉 或을 伯或, 或伯, 沚或, 沚戈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⁴⁰⁾

다음 예문은 王이 沚或과 더불어 召方을 정벌한 내용들이다.

[例4] 丁卯貞: 王比沚[或]伐召方, 受[又(祐), 在]在祖乙宗卜。五月。丁卯일에 묻습니다. 왕은 沚或과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하면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祖乙宗에서 점을 칩니다.

[例5] 癸酉貞: 王比沚或伐召方, 在大乙宗卜。 合33058[歷一] 癸酉일에 묻습니다. 왕은 沚或과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할까요? 大乙宗에서 점을 칩니다.

[例6] 辛未貞: 王比沚或伐召方。 屯南81[歷一] 辛未일에 묻습니다. 왕은 沚或과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할까요?
丁丑貞: 王比沚或伐[召方]。 屯南81[歷一] 丁丑일에 묻습니다. 왕은 沚或과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할까요?

위에서 인용한 歷一(‘歷組卜辭一類’의 약칭)과 屯南81(‘小屯南地甲骨’의 약칭)의 복사는 字體로 볼 때 歷組一類에 속하며, 歷組一類는 武丁시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干支인 辛未는 花東卜辭와 완전히 일치한다. 癸酉와 辛未일 사이에 겨우 하루간격이다. 이는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점복한 것이다.⁴¹⁾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召方을 정벌하는 데는 주로 沚或과 연합했다. 召方을 정벌하는 데 沚或(伯或)과 연합했다는 것은 沚或(伯或)이 召方の 지리를 잘 알거나 沚方이 召方과 인접해 있어 군사동원이 용이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7) 孫亞泳·林歡 著,《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66쪽.

38) 庚辰貞: 己亥又登比伯或無[田]. (合32814)

경진일에 점을 칩니다. 기해일에 (병사)를 징집하여 백혹과 연합하면 재앙이 없을까요.

39) 孫亞泳·林歡 著,《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66쪽.

甲子貞: 王比沚或在七月/ 辛巳貞: 王比沚或.(合33107)

癸亥卜: 令[吳]呼比沚戈曾[沚]土... 奠.(合32048)

40) 陳劍,《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 釋速》, 2004, 55쪽.

41) 陳劍,《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 釋速》, 2004, 55쪽.

이상 살펴본 결과 伯或은 或伯, 沚或, 沚戈라고도 칭하며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고, 沚方의 수령이다. 沚方의 수령으로는 沚馘과 沚或이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인물이며 각자 정벌에 참여한 방국 또한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沚或은 召方の 지리를 잘 알거나 혹은 沚方은 召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동원이 용이했음도 엿볼 수 있다.

2) 地名考 : 卨, 召方, 刀方에 대한 고찰

花東卜辭에서 정벌 대상은 卨이다. 王卜辭에서도 召方の 정벌에 관한 기록이 있다. 주로 갑골문 斷代에서 제 1기에 해당되는 기록인 歷組卜辭에 나타난다. 王卜辭에서 召方을 정벌한 내용은 위에서 沚或과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한 내용과 같다. 또한 召方과 刀方은 같은 지역이고 花東卜辭에서의 卨 또한 召方으로 보고 있다.⁴²⁾ 召方과 刀方에 관한 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例7〕 伐召方, 受佑。在。 召方을 정벌하면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冊伐召方, 受佑。 召方을 정벌하라고 칙령을 내리면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貞, 王比□〔伐〕 召方, 受佑。 문습니다. 왕은 □와 연합하여 召方을 정벌하면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合33020
- 〔例8〕 伐召方, 受。 屯南2634
 召方을 정벌하면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 〔例9〕 丙午貞: 惠王征刀方? 合33034
 丙午일에 문습니다. 왕은 刀方을 정벌할까요?
- 〔例10〕 庚戌卜: 惠王自征刀方? 合33035
 庚戌일에 점을 칩니다. 왕은 친히 刀方을 정벌할까요?
- 〔例11〕 庚戌貞: 惠王自征刀方? 合33036
 庚戌일에 문습니다. 왕은 친히 刀方을 정벌할까요?

陳劍도 召方과 刀方은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는 방국명 ‘召’는 ‘刀’의 소리

42) 孫亞泳·林歡 著, 《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81쪽.

를 따르고, ‘卬’는 ‘召’의 소리를 따른다⁴³⁾ 라고 했다. 그러므로 王卜辭에서의 刀方과 召方은 같은 지역이며, 召方과 花東卜辭에서의 卬는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宋鎮豪도 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召方과 卬를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⁴⁴⁾ 召方은 갑골문단대 제1기, 제3기, 제4기에 나타난다. 제1기 卜辭에서 召方은 상왕조와 적대국으로서 정벌의 대상이었다. 제3기에서는 상왕조의 신하가 되어 상왕이 수렴지를 하사하는 기록이 있다. 제4기에서는 다시 상왕조와 적대국이 되어 상왕이 친히 출정하거나 다른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명령하여 정벌하고 있다. 정벌의 시기는 대략 1월, 4월, 5월, 9월 11월 등이다. 召方은 殷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山西 중북부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花東卜辭에서의 卬_卩와 歷組卜辭에서의 召_召의 갑골문 자형은 다르다. 花東卜辭에서의 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卩이 있고 王卜辭에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卜辭에서의 召方은 갑골문 제1기, 제3기, 제4기에 계속 있어왔다. 그러므로 召方과 卬가 같은 지역인지의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위의 卜辭 내용으로 보면 비록 같은 날 동일 사건으로 점을 쳤지만 어느 정도 명령의 하달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 등장인물로 볼 때 만일 丁이 武丁이라면 우선 H3:275에서와 같이 등장인물 중 지위가 가장 낮은 子와 多_多에게 명령하여 伯或과 연합하여 卬를 정벌할 것인지, 그 다음이 H3:237에서와 같이 婦好에게 명령하여 伯或과 연합하여 정벌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H3:449에서와 같이 丁이 伯或과 연합하여 친히 정벌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제차인 子는 군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婦好는 당시 武丁의 妃이면서도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多子族 또한 군사들을 갖고 있었다.⁴⁶⁾ 子組卜辭의 子 또한 군대를 갖고 商王室을 도왔다.⁴⁷⁾ 이러한 상

43) 陳劍, 〈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釋速〉, 2004, 55쪽.

44) 孫亞泳·林歡 著, 《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82쪽.

45) 孫亞泳·林歡 著, 《商代地理與方國》(商代史 卷十), 2010, 283쪽.

46) 貞, 令多子族暨大侯僕周, 叶王事 ((合)6813) - 多子族과 大侯에게 周를 침공하도록 명하면 왕의 임무를 잘 수행 해낼까요?

황으로 볼 때 商代의 귀족집단에는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花東卜辭에 나타난 정벌관련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1) 花東卜辭 중 정벌에 관한 기록은 갑골 3편에 단지 5개 刻辭가 있다. 모두 辛未일 당일에 점복을 한 것이다. 내용은 卬를 정벌하는 데 과연 누구랑 연합하여 정벌하는 것이 좋은지 묻고 있다. 명령의 주체는 모두 丁이고 명령을 하달받은 인물은 婦好, 子, 多□이다. 丁은 이들에게 명령하여 伯或과 연합할 것인지 아니면 伯或에게 칙령을 내려 丁 자신이 친히 卬를 정벌하는 것이 좋을지 묻고 있다. 이로 볼 때 丁의 지위가 가장 높아 모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는 丁의 명령을 하달 받아 정벌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花東卜辭의 정벌관련 인물은 丁, 婦好, 子, 多□와 장수인 伯或이다. 이들은 花東卜辭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다. 이 중 丁과 婦好는 武丁시기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婦好는 武丁의 첫 번째 王妃로 제사를 주관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등 상황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또한 花東卜辭의 점복의 주체자인 子 또한 상황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子의 신분에 대해 여러 異見이 있으나 최근엔 韓江蘇와 楊升南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어 子는 武丁의 태자 孝己로 보고 있다. 丁은 商代 왕인 武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 多□에 대해 姚盦은 ‘多彡臣’으로 隸定하였다. 그러나 이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함을 엿 볼 수 있었다.

3) 花東卜辭 중 정벌에 참여한 장수는 유일하게 伯或 한 사람이다. 伯或은 或 伯, 沚或, 沚戈라고도 칭하며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고 沚方의 수령이다. 沚方의 수령으로는 沚貳과 沚或이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인물이며 각자 정벌에 참여한 方國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47) 李學勤, 〈花園莊東地卜辭의“子”〉, 1998, 124쪽.

4) 花東卜辭에서 정벌대상국인 卨는 王卜辭에서의 召方. 刀方과 같은 지역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형이 다르다. 花東卜辭의 卨는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인 卩이 있다. 王卜辭에서의 卨는  모양으로 卩이 없다. 이 지역을 정벌하려고 했던 장수가 伯或(卨或, 卨戈라고도 칭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伯或은 卨의 지리를 잘 알고 있거나, 卨方이 召方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伯或과 연합작전으로 卨를 정벌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花園莊東地甲骨》,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2003。
- 王譚然,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頻出人物的考証〉, 《語文學刊》, 2012。
- 王宇信, 〈序《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殷都學刊》, 2008。
- 劉一曼·曹定云, 〈再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体“子”〉, 《慶祝高明先生八十壽辰盛考古五十周年論文集》, 考古學研究之六, 科學出版社, 2006。
- 劉源, 〈墟花園莊東地甲骨文所見鑿拔之祭考〉, 《甲骨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台灣)》, 2005。
- 朱歧祥, 〈由語詞系聯花東甲骨的丁卽武丁〉, 《殷都學刊》, 2005。
- 朱風瀚, 〈犢安陽殷墟花園莊東出土的非王卜辭〉,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孫亞泳·林歡 著, 《商代地理与方國》(商代史 卷十),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李學勤, 〈花園莊東地卜辭的“子”〉, 《河南博物院落成論文集》,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1998。
- 李學勤, 〈關於花園莊東地卜辭所謂“丁”的一點看法〉, 《故宮博物院院刊》, 2004。
- 林沄, 〈花東子卜辭所見人物研究〉, 《第一屆古文字与古代史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6。
- 陳劍, 〈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 譯速〉, 《故宮博物院院刊》第4期, 2004。
- 楊升南, 〈殷墟花東H3卜辭“子”是武丁太子-孝己〉,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北京: 線裝書局, 2006。
- 姚萱, 〈試論花東子卜辭的“子”當爲武丁之子〉, 《故宮博物院院刊》第6期, 2005。

- 姚萱,〈花東甲骨“多彡臣”与相關問題〉,《史林》,2010。
- 常耀華,〈花東H3卜辭中的“子”—花園莊東地卜辭人物通考之一〉,《殷墟甲骨非王卜辭研究》,北京:線裝書局,2006。
- 蔣玉斌,《殷墟子卜辭的整理与研究》,博士學位論文,吉林大學古籍研究所,2006。
- 徐中舒,《甲骨文字典》,北京:中華書局,1989。
- 裘錫圭,〈論“歷組卜辭”的時代〉,《古文字研究》第6輯,中華書局,1981。
- 韓江蘇,〈殷墟H3卜辭主人“子”爲太子再論証〉,《古代文明》,2008。
- 趙誠,《甲骨文簡明辭典》,北京:中華書局,1988。
- 葛英會,〈讀殷墟花園莊卜辭〉,《殷都學刊》,2000。
- 雷曉鵬,〈迎難而上,探尋真相(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評介〉,《殷都學刊》,2009。
- 曹定云,〈“婦好”、“孝己”關係考証——從婦好母墓“司母辛”銘文談起〉,《中原文物》第3期,1993。
- 曹定云,〈殷墟花東H3卜辭中的“王”是小乙——從卜辭中的人名“丁”談起〉,《殷都學刊》,2007。
- 曹定云,〈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体“子”〉,《殷都學刊》,2009。
- 陳夢家,《殷墟卜辭綜術》,北京:中華書局,1988。
- 魏慈德,《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台北:臺灣古蹟出版有限公司,2006。
- 梁東淑,〈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숙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第31輯,1992。
- 梁東淑,《甲骨文解讀》,서울:月刊書藝文人堂,2005。
- 梁東淑譯,吳浩坤·潘悠 著,《中國甲骨學史》,서울:東文選,2002。
- 許進雄 著,洪熹 畝김,《中國古代社會》,서울:東文選,1991。
- 申永子,〈花園莊東地甲骨文的 主體인 ‘子’에 대한 考察〉,《중국문화연구》,2007。
- 申永子,《甲骨文的 비밀》,서울:문출판사,2011。

〈中文提要〉

花東甲骨文是在1991年發掘的非王卜辭。在這篇文章里有關征伐卜辭只有三板五個刻辭。征伐文的內容是在辛未日征伐了郟,而且还問與誰聯合征伐的?命令的主体是丁,接受命令的是婦好,子,多□。丁是對這些人下命令的,並不是與或伯聯合,而是對或伯下責令的,並問是不是丁親自征伐了郟?從此可看丁的職位是最高的,他可以對所有的人下命令。另外,花東主人子就是接受丁的命令征伐了郟。

有關征伐人物丁,婦好,子,多□和或伯。在武丁時期,主要人物是丁和婦好。特別是婦好,

她是武丁的王妃,掌管祭示,亲自占卜,受领封地管理,并与参战的商王室家族们有着密切的关系。再有花东卜辞的主人子也与商王室家族们有着密切的关系。关于子的身份意见纷纷。最近韩江苏和杨升男的主张有一定的说服力,子是武丁的太子,孝己。大部分学者趋向于:丁是商王武丁。有关多□被姚萱隶定‘多彡臣’。但是有关多□需要进一步的考察研究。

在花东卜辞里,参与征伐的将领只有伯彳。伯彳又叫彳伯,彳或,彳戈,四者是同一个人,是沚方的首领之一。再有,彳和彳或是沚方的另两位首领,但彳𠄎与伯彳不是同一人,他们各自征伐了其他方国。

被征伐的相对国家是邵,邵与王卜辞里的召方,刀方是同一地域。但是字形不同。在花东卜辞里的邵好似作祈祷的人的模样“𠄎”,召的模样是𠄎,没有口。想征伐这一地域的首领彳伯对召方的地理非常熟悉,可以推定彳方和召方是近邻。所以,与彳伯联合征伐了邵。

关键词: 花东甲骨文, H3征伐刻辞, 商代人物“丁”, 商代人物“子”, 武丁, 妇好, 伯彳, 邵, 召方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2년 1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